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입당 / 2월 2일

루가 제17주일

성 이그나티오스 안티오키아의 주교순교자
(성해 수습)

제7조 / 조과복음 10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 제7조 부활 찬양송 / 82. A 217
- 주일 입당송 / 14. A 42
- 순교사제 찬양송 / 84. B 264
- 성당 찬양송
- 주 예수 그리스도 입당 축일 시기송 / 164. B 159
- 사도경 : 고린토 후 6,16-7,1 / 봉독서 265
- 복음경 : 마태오 15,21-28 / 120. B 60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성 보르피리오스의 지혜로운 말씀 “임신한 엄마들에 대한 조언”

성인께서 한번은 소아과 의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가 되는 은총을 허락하시는 하느님께서 얼마나 엄마들을 존중하시는지 모든 엄마들이 잘 느낄 수 있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엄마의 뱃속에 태아가 자리 잡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생명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엄마들에게 자신의 배를 쓰다듬어 주라고 말해 주세요. 그것은 곧 태아를 쓰다듬어 주는 것으로서 태아는 이 모든 것을 신비롭게

느끼고 알아차립니다.

큰 사랑으로 아기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세요. 태어난 아기처럼 태아도 엄마의 사랑과 그 사랑의 부족을 다 느낄 수 있습니다. 분노, 화, 미움, 마음의 상처 등 엄마가 느끼는 모든 것을 태아도 느낄 수 있음은 물론이고 태어난 후의 삶에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엄마의 거룩한 삶과 감정은 아기가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아기를 거룩하게 해줍니다. 이 모든 것은 아빠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유혹”

두 가지 유혹이 그리스도인의 선교를 어렵게 합니다.

이 두 가지 유혹은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두 유혹이 초래하는 결과는 같습니다.

첫 번째 유혹은 부끄러움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영원히 영적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게 합니다. 부끄러움은 선교 활동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기회가 왔을 때도 자신의 입으로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기를 주저하게 하고, 자신의 믿음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만듭니다. 혹은 비난이나 조롱을 당하지나 않을까 겁을 먹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유혹은 자기중심적 사고입니다. 자기중심적 사고는 자기 자신을 경건한 모습으로 위장하게 합니다. 이 두 번째 유혹은 첫 번째 유혹보다 더 고약한 것으로 선교의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립니다.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선교의 기회가 주어져도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그리스도교 신앙과 정교회

의 전통은 뭐라고 말하는지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교 신앙을 증언하고 용기 있게 고백해야 할 의무를 선포하셨습니다. 당신의 복음을 ‘모든 나라에’ 전파하시기 위해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세상 방방곡곡에 보내셨습니다. 주님의 이 계명은 절대적이며 지속적으로 유효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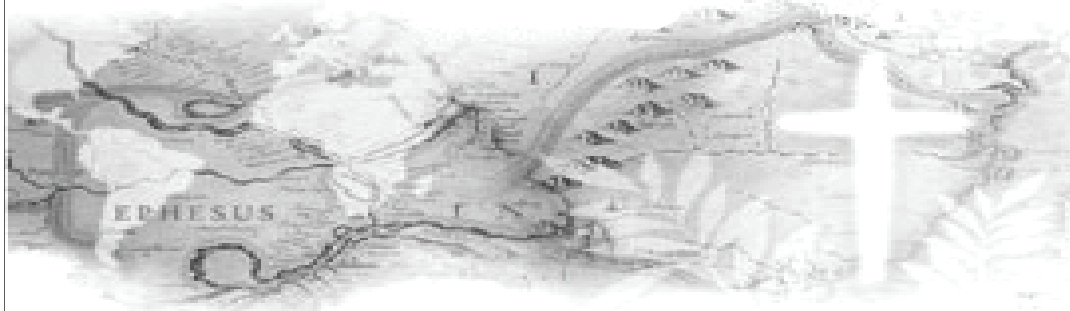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하겠다.”(마태오 10,32)

누구든지 부끄러움과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구원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결과에 대해 그리스도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하겠다.”(마태오 10,33)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프리오디온 기간에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부끄러움과 자기중심적 사고와 싸우며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노력합니다.

†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대주교





시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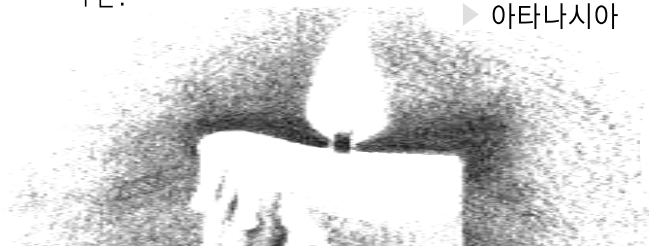
시간은 매우 느립니다.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시간은 매우 빠릅니다.
무엇인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시간은 매우 길니다.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는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행복한 이들에게는
시간은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당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여기 간단한 몇
가지 조언을 기억하세요.

- 1) 당신의 마음 속에 미움이 없게 하세요.
- 2) 당신의 정신이 생활에서 오는 긴장과 압박감
에서 벗어나게 하세요.
- 3) (남에게) 더 많이 주세요.
- 4) 그리고 (남에게 받기를) 덜 기대하세요.

올 한해도 하늘에서 오는 건강과 힘, 끈기, 희망 그
리고 많은 축복들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 아타나시아



소 식

대교구

■ 대교구의회

2월 14일(화) 2017년 대교구 의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대교구 소속의 각 성당 의회 구성원 여러분은 꼭 참석하여 교회를 위한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고 같이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17년 2월 14일(화) 12시 : 점심 식사 / 오후 1시 : 대교구 의회
- 장소 ▷ 대교구청 회의실

■ 프리오디온 시작

우리 정교회 전례력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 기간인 프리오디온 기간이 오는 2월 5일(주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프리오디온 기간에 모든 신자들이 풍성한 영적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예배에 빠지지 말고 참석하여 영적으로 준비합시다. 프리오디온 첫 주간은 금식이 없습니다.

주간 예식

- 2월 2일(목) ▷ 주 예수 그리스도 입당 축일
오전 9시 : 축일 조과, 성찬예배



성 대바실리오스, 그레고리오스 신학자,
요한 크리스스토모스 3대 교부

발행처 : 한국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 (02) 362-6371 / Fax (02) 365-2698 / www.orthodoxkorea.org